



**2017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문인력(기획자) 해외문화예술동향 리서치
(2017년 11월, 벨기에)**

2018.01.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17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문인력(기획자) 해외문화예술동향 리서치
2017년 11월 _주 벨기에 한국문화원 [배가브리엘]**

□ 목차

No.	구분		내용	page
1	현지동향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 여러 엑스포 개최	3
2			2017년 하반기 IETM 미팅은 브뤼셀에서 개최	4
3	문화 예술 디렉 토리	공간	카이씨어터 / Kaai Theatre	7
4			베어사우베르 / Beursschouwburg	7
5		축제 및 행사	브뤼셀 거리사진축제 / BSPF(Brussels Street Photo Festival)	9
6			포토브뤼셀 페스티벌 / Photo Brussels Festival	10
7			브뤼셀 카페-떼아트르 페스티벌 / Brussels Cafe-theatre Festival	11

□ 현지동향

1. 현지 동향 <1>			
유형	전시/축제	장르	시각예술
관련링크	(1) 이슬람 엑스포 : http://expo-islam.be (2) 유로팔리아 인도네시아 : http://bozar.be/fr/activities/122835-europalia-indonesia (3) 오세아니아 엑스포 : http://kmg-mrah.be/expositions/oceania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 여러 엑스포 개최

시민들이 테러에 대한 위협을 직접적으로 실감하고 난민의 유입도 늘어나면서, 외국 및 외국인에 대한 분위기가 예전보다 다소 경색되었다. 그러나 브뤼셀은 약 180개국 시민들이 모여 사는 개방과 자유의 도시를 표방하는 만큼, 2017년 도시의 모토를 혼종 내지 혼합("Mix-ity")으로 삼으며 이질적 문화에 대한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다국적 국가이자 유럽연합의 중심지라는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부응하듯 여러 예술기관이 중동, 인도네시아, 오세아니아 문화권에 대한 엑스포를 연달아 개최하고 있다.

우선 지난 9월 15일부터 <이슬람 엑스포> 전이 브뤼셀의 밴더볼트(Vanderborght) 건물에서 진행 중이다. 이슬람 문명은 8세기 스페인을 지배했던 이후 유럽과 지속적으로 접촉 및 교류해 왔다. 유럽에 영향을 끼친 이슬람 문명을 크게 세 시대 - 무슬림이 이베리아 지역을 점령한 아랍 시대, 오토만 제국이 발칸반도로 진출했던 오토만 시대, 제국이 쇠퇴하고 유럽 식민주의자들이 밀려오는 가운데 독립운동이 발발했던 식민주의 시대로 구분하고 각 시대의 유물을 동일한 맥락에서 전시한다. 유물들이 단지 이슬람 문명권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유럽 역사의 일부("이슬람 역사는 우리의 것이기도 하다(L'Islam, c'est aussi notre histoire)")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두 문화권이 갈등을 겪고 접점을 형성하며 융합해 온 과정을 보여준다. 즉 약 1300여 년에 걸친 이슬람과 유럽의 관계를 살펴보고, 서로 다른 두 문화가 만나 새로운 형태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번 <이슬람 엑스포>의 취지이다. 엑스포는 내년 1월 21일까지 브뤼셀에서 진행된 후 불가리아의 사모코프 등으로 이동, 여름에 막을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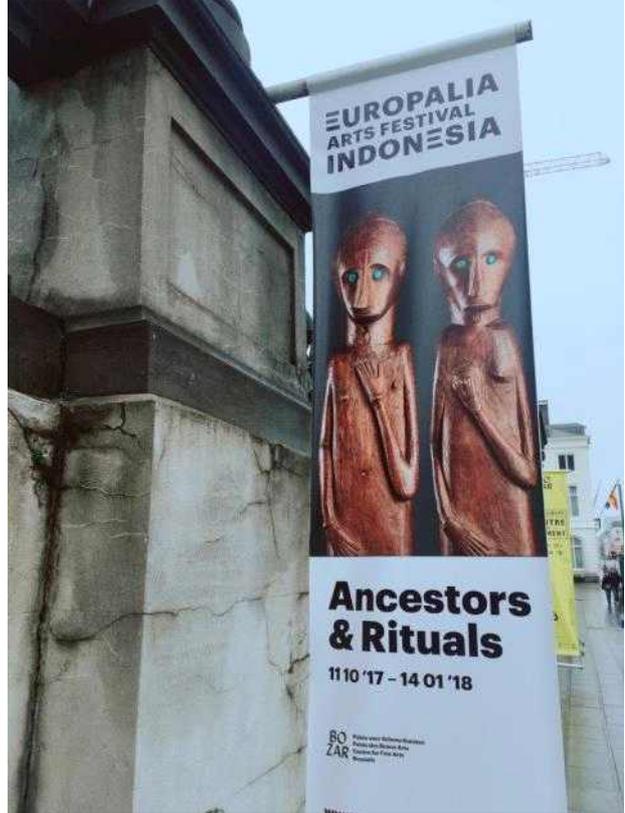
한편 1969년부터 매 2년마다 개최되어 온 시각예술 비엔날레 <유로팔리아(Europalia)>는 역사가 깊은 만큼 규모도 큰 행사다. 특정 국가를 주빈국(Guest Country)으로 선정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형성하는 여러 요소를 살펴보는 데 무게중심을 둔다. 이번 유로팔리아의 주빈국은 인도네시아로, 10월 10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약 4개월 간 여러 예술기관이 협업하여 인도네시아의 예술작품을 소개한다. 장르와 시대에 구애받지 않으며,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진, 영화, 연극, 무용, 음악, 문학, 음식 등을 폭넓게 다룬다. 일례로 벨기에 최대의 종합예술기관으로 꼽히는 보자르(Bozar)는 두 개의 테마전을 진행한다. <선조들(Ancestors)>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전통제례들이 가지는 함의를 살펴보는 한편 <권력과 그 외의 것들(Power and other things)>에서는 1830년대부터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의 음악과 춤, 문학, 영화 등을 소개한다. 이처럼 유로팔리아 인도네시아는 작금의 아티스트들이 만들어낸 작품을 포괄함으로써, 관람객으로 하여금 인도네시아와 외부 문화의 교류 - 유럽과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지배했던 시기에 어떤 활동이 진행되었는지, 현재 아티스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는 무엇인지 등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썩깅뜨네흐 박물관(Musée de Cinquantenaire)이 주최하는 <오세아니아 엑스포> 역시 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며 관람객을 맞이하는 중이다. 오세아니아에 인류가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약 6만 년 전으로, 유럽인들은 항해술이 발달한 18세기에 비로소 독특한 고유의 문화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세아니아 엑스포>는 처음으로 교류를 시도했던 유럽인들의 시선과, 오세아니아 전통에 뿌리를 두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온 내부인들의 시선을 동시에 보여주고자 한다.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뉴칼레도니아, 마이크로네시아 등 오세아니아 문화권을 형성하는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공개되는데, 도자기, 지도, 배, 악기뿐만 아니라 당시 유럽 뱃사람들의 기기나 기록물도 포함된다. 더불어 현대 작가 중 한 사람으로 타히티 출신 아티스트인 장-폴 포레스트의 작품을 이 유물들과 나란히 전시하여, 현대에 들어 오세아니아의 전통이

어떤 식으로 발현하고 있는지를 탐구한다.

이처럼 현재 브뤼셀에서는 “믹스티”를 외치며 다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탐색하는 전시들이 열리고 있다. 외부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국제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도 보인다. 도시의 포용력을 강화하고 개방적인 문화 생태계에 일조하고자 하는 여러 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은 교류와 소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을 듯하다.

(사진1, 2 : 오세아니아 엑스포, 유로팔리아 인도네시아에 대한 옥외광고)



1. 현지 동향 <2>			
유형	축제	장르	공연예술
관련링크	(1) IETM 홈페이지 https://www.ietm.org (2) IET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g/IETMnetwork		

2017년 하반기 IETM 미팅은 브뤼셀에서 개최

IETM(Informal European Theater Meeting ; International Network for contemporary performing arts, 국제현대공연예술네트워크)은 약 50개국 이상에 걸쳐 500개 이상의 연극, 무용, 서커스, 뉴미디어 및 기타 공연예술을 제공하는 기관(축제, 프로듀서, 학교 등) 및 개인 아티스트를 회원으로 보유한 네트워크이다. 1981년 이탈리아에서 설립된 이후 현재는 세계 각지에서 비정기 미팅을 진행하는 동시에, 1년에 2번씩 특정한 이슈를 주제로 삼아 유럽의 대도시에서 총회(IETM Plenary meeting)를 진행 중이다. 2017년 상반기(4월)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총회가 진행된 데 이어 이번 11월에는 브뤼셀에서 하반기 총회가 열린다.

IETM이 총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회원 및 회원들이 소속된 단체 또는 국가 간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양질의 공연예술을 위한 실험이 지속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데 있다. 각 기관들이 다루는 공연을 다변화하고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성(Diversity)”과 “포용성(Inclusion)”을 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다. 매 총회를 아우르는 화두 역시 작금의 정치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며, 상반기에는 공연예술계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과 도전에 대해 다루었고 이번 하반기에는 파퓰리즘이 공연예술에 미치는 영향 또는 의미를 주제로 삼았다. 이런

화두에 대하여 참석자들이 그들의 배경 - 인종, 성별, 성적 지향성, 장애 여부, 나이, 직업, 국적 등에 무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한다. 일례로 IETM의 키노트를 포함해 모든 세션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를 동반하며, 스크린과 자막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파퐁리즘 시대의 예술(Art in the age of populism)”이라는 주제 아래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총회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프로그램은 네트워킹 세션, 토론 세션, 상연 세션 등으로 나뉜다. VUB 대학 에릭 코린 교수의 오프닝 연설로 그 막을 여는 토론 세션에서는 발제자와 참석자가 여러 소주제- 파퐁리즘의 재정적, 소외지역에서의 예술행위 등을 두고 논의를 진행한다. 또한 참석자들 간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여러 세션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는데 이 중에는 사전 신청을 마친 참석자들이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며 파트너를 공개적으로 구할 수 있는 세션도 있어, 실질적인 협업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저녁에는 총회의 담론과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공연(연극, 무용, 퍼포먼스, 미디어아트 등)이 제공된다. 일례로 KVS 극장은 벨기에를 대표하는 현대무용단 중 하나인 <울티마 베즈(Ultima Vez)>의 <현대의 구세주에 대한 모큐멘터리(Mockumentary of a Contemporary Savior)>를, 샤를루아 당스는 한국의 국립현대무용단과 <나티보스>를 공동제작하기도 한 애슐린 파롤린의 <자연 발생 II(Autoctonos II)>을, 바리아 극장은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의 원본을 개작한 <펠리컨(the Pelican)>을 상연한다. 장르를 막론하고 이번 총회 기간 동안 제공되는 대부분의 공연이 인간에 대한 외압과 강제, 배타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어 흥미롭다.

이번 IETM 총회는 11월 26일로 막을 내린 후, 2018년 4월에는 포르투갈의 포르투, 11월에는 독일의 뮌헨에서 또다시 열릴 예정이다. 약 800명 이상이 참석하며 역대 최다 참석자 기록을 다시 갱신한 가운데, 브뤼셀 북부의 몰렌백생장 지구를 중심으로 여러 공연장에서 포용성 있는 예술을 위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사진 1-6 : IETM 개최 현장)





□ 문화예술 디렉토리

1. 문화예술 디렉토리 (공간)

공간명	카이씨어터 / Kaai Theatre		
유형	공연장(극장)	장르	공연예술
운영주체	에디 반 켈더(회장) 외 카이씨어터 이사회		
소재지	브뤼셀, 벨기에	설립년도	1977년
공간현황	카이씨어터, 카이스튜디오 등 공연장 2개 및 레지던시 운영		
홈페이지	https://www.kaaitheater.be		

공간

카이씨어터는 컨템포러리 댄스, 연극, 음악 및 기타 퍼포먼스를 위해 장소를 제공하고 자체적으로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는 공연장이다. 1977년 로열 플랑드르 극장(KVS, Royal Flemish Theatre) 100주년을 기념하는 비엔날레의 일부로 시작되었던 프로젝트는 1987년부터 영구화되어, 전위적이고 국제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연장으로 자리 잡았다. 1977년 축제 당시 공연이 진행되었던 대형 텐트와 차고 등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자체 제작공연을 포함해 상당한 규모 이상의 공연을 올리는 ‘카이씨어터’와, 보다 소규모의 공연을 위한 ‘카이스튜디오 (Kaai Studio)’를 보유하고 있다 - 카이씨어터는 브뤼셀에 위치한 동류의 극장 중 가장 큰 무대를 갖고 있으며, 10개 정도의 컴퍼니들이 매년 레퍼토리를 구성한다. 카이스튜디오는 한때 양조장으로 사용되었던 건물로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소규모 공연과 워크숍이 진행된다.

1977년 당시 축제의 목표가 혁신적인 공연예술작품의 제작을 진흥하는 데 있었던 만큼, 여전히 실험성 강한 컨템포러리 아트센터로서 아동 및 청소년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것 또한 카이씨어터의 특징으로, 일례로 2009년 로사스 무용단이 초연한 이래 약 10년 만에 개작 형태로 돌아온 <자이퉁(Zeitung)>의 경우, 어른 관객을 위한 공연과 동반 아동을 위한 워크숍이 동시에 진행된다. 아동, 시각장애인 등 공연에서 소외될 수 있는 관객을 포함하여 신체적 실험을 진행하거나 정기적 심포지엄을 주최하는 등 실험과 참여를 중요하게 여기는 공연장이다.

(사진 1, 2 : 카이씨어터 전경 및 입구)



* TIP : 카이씨어터의 프로그램은 연극, 춤, 음악, 워크숍, 컨퍼런스 및 기타 퍼포먼스를 폭넓게 아우르고 있으며, 카이씨어터/카이스튜디오 외 브뤼셀 시내의 복합현대 예술공간 베어사우베르(Beursschouwburg)나 국립기관 보자르와도 협업하는 경우가 많다. 카이씨어터는 IETM의 설립 주축이기도 하며 이외 파트너로 브뤼셀의 아트센터 글로브 아로마(Globl Aroma), 공연축제인 씨어터페스티벌(TheaterFestival) 등이 있다.

공간명	Beursschouwburg		
유형	복합예술공간	장르	시각/공연예술
운영주체	아그나 스미스덤(회장) 외 베어사우베르 이사회		
소재지	브뤼셀, 벨기에	설립년도	
공간현황	영화 상영 공간, 전시 공간, 공연 공간 등		

지하층을 포함한 1개 빌딩의 공간을 유연하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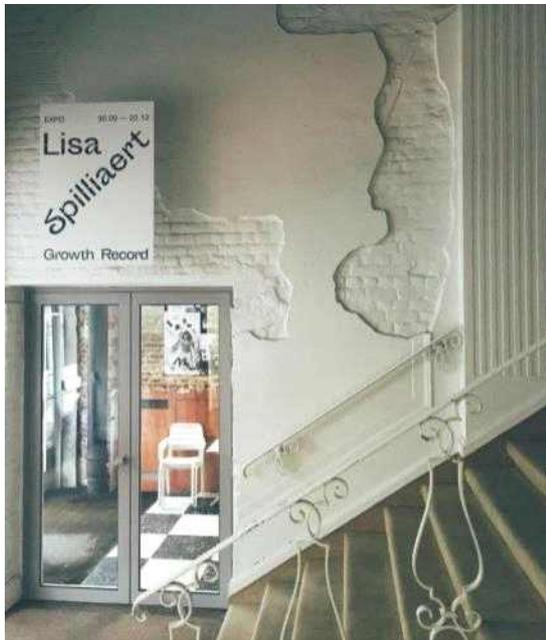
홈페이지

<http://Beursschouwburg.be>

네덜란드어로 “전시회”와 “극장”의 합성어인 베어사우베르는 브뤼셀 그랑플라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는 탈-장르 아트센터(Multi-disciplinary art centre)를 지향한다. 연극, 퍼포먼스, 콘서트, 영화, 전시, 세미나, 라운드테이블, 강의 및 워크숍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건물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건물의 1층과 2층은 전시장 또는 공연장으로, 지하는 콘서트장 및 영화 상영 공간으로 사용하는 식이며, 여러 공연과 전시가 동시에 진행되는 일도 많다. 젊고 혁신적인 작가와 작품을 선호하며, 특히 장르의 붕괴 또는 장르 간 협업에 관심이 높다.

베어사우베르는 이질적 요소를 융합하는 “가마솥(Melting-pot)”이 되도록 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크게 전시(Expo), 음악, 퍼포먼스, 상연, 담론의 다섯 카테고리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위해 여러 안무가, 영화제작자, 사진작가, 컨템포러리 뮤지션 등과 함께 작업을 진행한다.

(사진 1-4 : 베어사우베르 내부 및 사진 / 5 베어사우베르 전경)





* TIP : 1885년에 만들어진 건물을 1946년에 극장으로 개축하면서 베어사우베르가 탄생하였으며, 다시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개축을 거쳐 지금의 건물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1960년대 베어사우베르는 플랑드르 문화권 작품의 부흥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다수 플랑드르 연극들을 상연하였고, 1970년대에는 아동극을 전문으로 상연하고 있는 브롱크스 극장의 설립자 오다 반 네이겐이 프로그램 디렉터를 맡기도 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 베어사우베르는 보다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예술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성격을 굳히게 되었다. 매주 무료 영화 상연, 옥외 루프탑을 활용한 네트워킹 및 콘서트 개최 등으로 젊은 관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II. 문화예술 디렉토리 <축제 및 행사>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브뤼셀 거리사진축제 (BSPF)		
유형	축제/행사	장르	시각예술/사진
운영주체	CAKRI		
개최시기	2017.10.6.~2017.10.20	시작년도	2016
개최도시	브뤼셀, 벨기에		
참가규모	N/A (주최측 선정작가 10명)		
홈페이지	Http://www.bspfestival.org		

올해 10월 6일부터 열린 브뤼셀 거리사진축제(BSPF, Brussels Street Photo Festival)는 단어 그대로 “스트리트 포토”, 즉 거리사진을 주제로 삼고 있는 문화 프로젝트이다. 여태껏 하위문화(Sub-culture) 또는 틈새문화(Niche-culture)로 간주되었던 거리사진이 한 도시를 관찰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즉 도시의 건물이나 도로가 어떻게 변화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고려 및 연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BSPF 프로젝트의 취지이다. 따라서 BSPF는 브뤼셀이라는 특정한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두 개의 축, “지역성(Locality)”과 “국제성(Internationality)”을 보여주는 거리사진을 수집하고 전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매그넘 사진작가 토마스 드보르작과 제롬 세시니,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엘레나 체르니쇼바, 포토-저널리스트 안스 브리스 등이 게스트 작가로 참여했다. 행사는 전시, 상영, 토론, 라운드테이블, 포트폴리오 리뷰, 워크숍 등 다양한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BSPF로 접수된 사진 중 최종심에 오른 작품은 10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주최 측이 선정한 게스트 작가들의 작품은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전시된다. 개방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행사로서 이미 명망이 높은 사진가들뿐만 아니라 신진 작가들에게도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전시는 무료로 진행된다.

* TIP : BSPF를 구상하고 조직한 카크리(CAKRI)는 브뤼셀의 문화적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 제작하는 단체이다.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며, BSPF 외에도 공공 장소를 위한 프로젝트나 교육 프로젝트 등을 지원해 왔다. 도시 연구 플랫폼 〈브뤼셀 뉴스룸〉도 카크리의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포토브뤼셀 페스티벌 (Photo Brussels Festival)		
유형	축제/행사	장르	시각예술/사진
운영주체	헝가아트센터(Hanger Art-centre)		
개최시기	2017.11.17.~2017.1.20	시작년도	2016
개최도시	브뤼셀, 벨기에		
참가규모	약 200개 작품 전시 (주최측 선정 작가 15명 내외)		
홈페이지	https://www.photobrusselsfestival.com/		

포토브뤼셀 페스티벌은 10월 초 열리는 브뤼셀 거리사진축제(BSPF, Brussels Street Photography Festival)에 연이어 개최되는 사진예술 행사다. 2016년 처음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어, 사진예술에 대한 벨기에의 상당한 애정을 드러낸다. 포토브뤼셀은 매년 하나의 키워드를 선정하고 그에 맞는 사진작품을 소개하려 한다. 작년의 주제가 지구(“Loving earth”)였다면 올해의 화두는 초상(“Portrait”)으로, 초상사진의 의미에 대해 아티스트들이 모여 여러 질문을 제기할 예정이다.

19세기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값비싼 초상화를 그릴 특권을 누리지 못했던 시민계급이 사진을 적극적으로 수요하기 시작했다. 많은 사진작가들이 사람들의 얼굴을 기록해 왔고 지금은 스스로 자기 모습을 연출, 기록하는 “셀피(Selfie)”가 또 다른 형태의 초상사진으로 자리를 잡았다. 방식은 다양해졌을지언정 사진의 대상(인물)이 속한 시공간을 포착하고 인물의 정체성을 규정한다는 초상사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초상사진은 과연 컨템포러리 예술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는가? 올해의 포토브뤼셀은 이런 문제의식을 기저에 두고, 아날로그와 디지털뿐만 아니라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가장 최신의 기술까지 포함하여 초상사진의 의미를 이야기한다.

브뤼셀의 익셀 지구에 위치한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헝가(Hangar)가 주최하며, 2017년에는 사진, 회화, 영화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작업해 온 장-클로드 바우터스를 포함한 아티스트 16명을 선정하였다. 이 중에는 한국의 강영호도 이름을 올렸으며, 2016년 박형렬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 작가가 선정되었음에 벨기에한국문화원은 포토브뤼셀과 협업, 양국의 사진작가들이 함께 작품을 전시하는 〈동화의 순간(Synchronizing Instance)〉전을 연다. 11월 14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한국의 강영호, 변순철과 벨기에의 프랭키 버딕트, 토마스 드 바우터스(2016년 포토브뤼셀 선정 작가)의 작품이 나란히 소개될 예정이다.

포토브뤼셀은 아티스트와 관람객 모두 사진에 대한 도발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전시, 쇼케이스, 워크숍 등을 진행한다. 앤트워프왕립예술학교, 라캄브리고 등 시각예술학교 등도 참여하여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한다. 즉 포토브뤼셀은 사진예술에 온전히 목적을 두고 그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며 여러 국적과 연령대의 아티스트들에게 의견 개진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행사로서 의의가 있다.

* TIP : 앤트워프왕립예술학교, 라캄브리고등시각예술학교 등이 사진으로 이름이 높은 가운데, 벨기에는 유수의 컨템포러리 사진 갤러리를 보유하고 있다. 1978년 설립된 콩트르티프 미술관이 유명하여, 콩트르티프에서

는 로버트 메이플소프의 작품을 벨기에에서 처음으로 전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실험적인 전시를 주로 진행하는 헤시클라트(Recyclart), 컨템포러리 사진울 전시하고자 리에주문화센터의 일부로 설립된 새틀리트 갤러리(Satellite Galerie), 기획자 겸 콜렉터인 잉그리드 듀스가 설립한 잉그리드 듀스 갤러리(Ingrid Deuss Gallery) 등이 있다.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브뤼셀 카페-떼아트르 페스티벌 (Brussels Cafe-theatre Festival)		
유형	축제/행사	장르	공연예술/음악
운영주체	COCOF (프랑스어권공동체위원회)		
개최시기	2017.11.1.~2017.11.26.	시작년도	2016
개최도시	브뤼셀, 벨기에		
참가규모	16개 카페-씨어터 참여		
홈페이지	www.bruxellessurscenes.be		

“브뤼셀 온-스테이지(Bruxelles sur scenes)”라는 별칭을 달고 있는 브뤼셀 카페-떼아트르 페스티벌은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공연예술축제다. 2016년 11월 처음으로 행사를 개최한 COCOF (프랑스어권공동체위원회)의 취지는 지역 문화행사의 양과 질을 제고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공연을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브뤼셀에 위치한 카페 떼아트르(카페 씨어터), 즉 실험적인 연극과 소규모 연주회를 주로 여는 카페식 극장들이 참여하며, 올해는 11월 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2016년 15개의 카페가 나흘 동안 개최했던 축제가 약 한 달로 늘어난 것이다. 행사 기간 동안 16개의 카페가 식사 또는 음료와 함께 카페 고유의 레퍼토리, 즉 음악이나 연극, 코미디 공연 등을 제공하게 된다.

소규모 공연장에 맞는 여러 실험적인 공연들이 더 많은 관람객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COCOF는 모든 카페에서 한 번씩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통합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COCOF는 이를 계기로 브뤼셀의 풍부한 공연문화 중 일부를 이루고 있는 카페떼아트르의 공연들이 재조명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제각각 카페가 특징 있는 공연을 제공하는 만큼, 주최 측은 카페의 레퍼토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1978년 설립된 이후 젊은 연극인들에게 무대를 제공해 왔으며 작가 브루노 코펜스, 배우 파스칼 비베르가 공연하기도 했던 라 수파프(La Soupape), 1960년부터 음악, 코미디, 연극 등을 올려 온 로스 아 모엘(L'os a moelle) 등이 참여한다.

* TIP : 브뤼셀에는 1935년 설립된 아틀리에 마르셀 아스티르(L'atelier Marcel Hastir), 1960년 설립된 로스 아 모엘(L'os a moelle), 등 역사가 오래된 카페 떼아트르가 다수 있다. 협소한 장소에서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공연이 이루어지며, 전통적인 연극이나 라이브 음악부터 배우의 즉흥 대사로만 이루어진 공연까지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실험한다. 브뤼셀의 카페떼아트르는 공연예술이 발달한 벨기에의 서브컬처 중 일부를 이루고 있다.